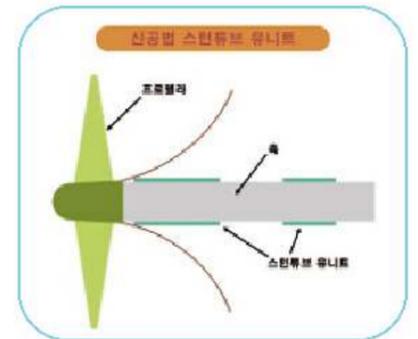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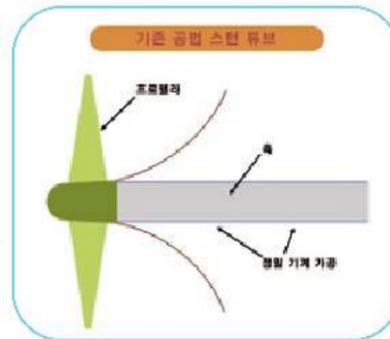




STERN TUBE UNIT 자체개발



우리 회사는 축스에 맞춘 선수, 선미 부시와 관련 의장품을 일체화한 획기적인 STERN TUBE UNIT을 개발하였다.



STERN TUBE UNIT는 선박의 프로펠러 샤프트를 지지하는 베어링 유닛을 말하는데 기존의 STERN TUBE 작업은 조립장, PE장, 선대, 도크 등 현장 작업으로만 진행되어 공정관리가 어렵고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또한 무거운 가공장비들을 현장 설치 또는 해체를 반복하고 공정 진행상 대기 또는 중복된 공정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현장 시공으로 인한 품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재가공, 재설치 등의 문제도 함께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이번 STERN TUBE UNIT 개발을 통하여 우리회사가 해결하게 된 것이다. 기존 공법의 복잡한 과정과 공정상에 따르는 손실을 줄였고 이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전문공장에서 전용가공기로 정밀제작 하므로 품질이 보장되며, 현장시공을 최소화하여 공기단축으로 인한 도크 회전율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국산화로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정확한 납기가 가능하며, 나

아가서는 조선기자재 산업 발전에도 기여 할 것이다.

최근 조선 산업의 아웃 소싱 동향에 적극 대응하여 전문화 품목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하며, 향후 당사의 모듈대형화 전략에서 경쟁력을 확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품목으로 선정되어 효율 극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조선소들을 순회하면서 시연회 및 기술발표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획기적인 개발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 까지도 성공적인 진출을 기대 해 본다.

5월 9일 다선사우회 체육대회

모두 모여라! 체육대회로...



이번달 9일 우리 회사의 단결을 위한 '다선사우회 체육대회'가 개최된다. 다대중학교에서 펼쳐질 이번 체육대회는 전직원 및 직원 가족이 함께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게 될 것이다.

이번 체육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BEST 축구대회, 축구 예선경기와 피구 경기, 줄다리기, 축구 결승, 400m 계주 시상 및 폐회식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윗놀이와 여성 참가자를 위한 링 던지기,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 그리기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번외 경기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무엇보다 이번 체육대회가 기대되는 것은 새롭게 선보이는 BEST 축구대회 속의 '별들의 전쟁'이다. 보통의 축구 경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주목해야할 것은 독특한 팀편성이다. 대표이사와 상임고문의 참석 하에 나눠진 팀 속에서 어떤 선수가 과감한 플레이를 펼칠지 관전의 묘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직원들의 가장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종목은 번외 경기 중 하나인 족구이다. 치열한 예선전까지 펼쳐지는 이유는 바로 작년에 비하여 실속있어진 시상금에 있다. 어느 팀에게 시상금이 돌아가게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체육대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풍성한 상품이다. 추첨방식으로 진행되는 경품행사에서 1등은 42인치 PDP TV, 2등은 디지털 카메라, 3등은 네비게이션 등에 행운상까지 마련되어 있어 체육대회의 재미를 더하게 된다.

한편 체육대회 개최를 축하하는 협력업체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회사는 협력업체의 지원으로 인해 따뜻한 마음과 정을 느낄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밝혔다. 5월의 따뜻한 햇살 아래 정정당당한 경기 속에서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병원협약

'가족의 건강까지 책임 집니다'



우리 회사는 하단 오거리에 위치한 '미래아이여성병원'과의 협약을 통하여 가족친화기업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기존에는 직원의 재해 시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통하여 직원의 가족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미래아이여성병원은 여성과 산부인과 등의 전문병원으로 의료 수준도 인정받고 있어 가족의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보험이 전산상 등록되어 있어 방문시 우리 회사 직원인 것만 확인되면 건강검진, 각종 진료 및 수술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우리 회사 직원과 가족 뿐 아니라 사내 외주업체의 직원들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번 협약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산후조리원 등 혜택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보다 다양한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타 미래아이여성병원 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총무안전과로 문의바랍니다.

ASME U,S STAMP 취득

지난 3/18~19 양일간 실시한 "ASME STAMP U,S"의 인증서가 4/30일 접수되었다. PRESSURE VESSEL 제작인증인 "U" 스탬프, POWER BOILER & PIPING 제작인증인 "S" 스탬프를 획득함으로써 우리 회사는 해양플랜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장 혁신

현장관리 및 운영 반장 중심으로 현장 관리 레벨 업!



우리 회사 현장혁신이 또 하나의 큰 변화를 시작하였다. 반장중심 현장운영 워크샵을 통하여 반장중심 현장운영 실무교육과 공장별 현장혁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동안 소장에서 이루어졌던 현장 관리 단위를 반장중심으로 정밀도 있게 전개함으로써 현장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이 반장중심 현장관리의 핵심이다. 신입사원과 반장이 똑같은 일을 하고 결정권 자체가 높아져 있어 직무에 맞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실정이 그렇다 보니 반장이 되고자 하는 의욕도 줄어들고 목표의식이 줄어든 만큼 발전도 뒤쳐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고 작업지와 현장운영의 체계를 바로 잡기위하여 반장중심 현장관리가 운영되게 되었다.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반장중심 현장운영은 실제 현장에서 중심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반장인 만큼 그들에게 리더십 향상을 위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한단계 상승한 업무로 원래 반장의 업무를 되찾게 된다. 반장의 작업관리 절차는 계획, 준비, 지시, 확인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말로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일일적업지시서를 통해 방지하게 된다. 반장 스스로 생산 흐름을 파악하고 생산 관리 프로세스를 변화 시킴으로써 업무 전체 관리를 통한 개선과 개인 능력 별 작업지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공장별 현장혁신은 '현장 자랑 대회' 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있는데 공장별로 실시하는 현장혁신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배움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다. 각 공장 투어를 통하여 다른 공장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껴 좋은 점은 배우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현장 자랑대회를 통하여 레벨을 상승시켜 나가고, 실질적인 변화와 열의를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공장별로 비교가 되고 순위를 매길 수 있어 그에 따른 포상도 계획 중에 있다.

반장 중심 현장운영 워크샵이 4월 18일에 1차로 대대 1,2,3공장을 대상으로 총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반장 중심 현장관리 및 운영 실시 교육과 상임고문의 특강 순으로 진행되어 행사 종료 후에는 식식 및 간담회를 통한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구평 영도공장을 대상으로는 5월 중순 실시될 예정이다.

처음에는 불만의 소리도 들려왔으나 이번 워크샵을 통하여 변화를 위한 호기심과 의지를 나타내게 되었고 진짜 반장으로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반장의 기량향상이 곧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반장중심 현장운영이 현장 혁신의 틀을 바로 잡아 끊임없는 성장을 이뤘나갈 것이다.

회사 소식

우리들의 이야기 장수복 · 이상하 기원의 이야기



며칠 전 1공장의 전사원이 모인 가운데 우리회사 최장기 근무사원 장수복 기원과 이상하 기원의 퇴임식을 가졌다. 두 분 모두 칠순을 넘기시는 동안 절단반과 보온반을 맡아서 지금까지 훌륭하게 소임을 다하신 분들이다. 퇴임 전날 두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그 분들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소개한다.

“창업 초창기때의 일입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납품대금을 받아오면, 책상 위에 돈을 짝 놔두고 생활에 꼭 필요한 만큼만 각자가 알아서 가져갔습니다. 월급을 다 주면 자재를 못사고, 자재를 사버리면 직원들의 가정생활이 어려워지므로 이렇게 월급을 두 번씩, 세 번씩 나누어 받아갔습니다.”

“철재상에서 철판 한 장을 사서 운반할 만한 큰 트럭이 없어서 절단기를 가져가 철재상 앞 배수에서 절단해 1톤 트럭에 싣고 왔습니다. 하수구 풀때문에 연기가 말할 수 없을 정도였고 냄새도 지독하여 철재상 주인이 인상을 쓰며 툴대기 일수였습니다.”

““중 큰 스테이너를 수주받았을 때 공장 천정이 낮아서 턴 오버(뒤집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땅을 파고 빠트린 다음 뒤집어 작업을 했습니다”

두 분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첫 번째가 믿음일 것이다. 그 때 이미 20년 이상 대기업과 해외 현장에서 일해온 고급 기능인이 이 작은 회사를 “할 수 있는 회사”, “함께 해야 하는 회사”로 믿고 끝까지 노력하여 오늘의 우리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전이다. 여건이 어려워도 방법을 찾아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마 끈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을까 싶다. 두 분이 계속 웃는 얼굴로 이야기 하는 뜻은 아무리 도전 정신이 강해도 세상은 쉽지않은 않을 것이며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끈기있게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확실히 두 분은 우리 모두의 선생님이다. 그리고, 두 분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고, 두 분의 정신은 우리 모두의 정신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두 분의 여생이 편안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홍렬 상무의

이 한권의 책 “아잔 차의 마음”

전 세계인의 정신적 스승 아잔 차의 행복한 마음공부

달라이 라마, 틱낫한과 더불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표적인 불교 수도승 아잔 차의 행복한 마음공부를 담은 책 <아잔 차의 마음>이 조화로운삶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흔들 수 없는 평화로, 본래 깨끗하고 고요한 마음 안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데려다 놓는 이 책은, 아잔 차의 단순하지만 힘 있고 감동적인 말들로 채워져 있다.

아잔 차는 1918년 태국 북동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아홉 살에 출가해 스무 살에 비구계를 받았으며, 태국 최고의 지도자였던 아잔 문 선사를 비롯한 여러 숲 속 선사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1954년 밀림에서 시작된 왓 뽀뽕 사원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이들이 종교의 벽을 허물고 각자 진리와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곳에서 아잔 차는 방문한 모든 사람들을 직접 맞이했으며, 특유의 유머와 통찰로 모든 중

교를 초월해 현대인의 삶의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1992년 입멸할 때까지 그는 소박한 삶, 버림의 삶을 몸소 실천했던 그의 가르침은 특히 서양인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에는 즉흥적인 모임에서 녹음된 법문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공식적인 법문도 있다. 그러나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아잔 차는 절대로 미리 법문을 준비하지 않았다. 어느 한 구절도 그가 입을 열기 전에 구상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순간의 필요에 따라 법이 떠오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스승의 역할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추천 여행지

산청

오감만족 건강축제 “산청 한방약초 축제”



5월, 지리산의 푸르름이 굽이굽이 감아도는 국도를 따라 차를 타고 가는 길은 너무도 아름답다.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이 매력적인 지리산의 중심에 위치한 경남 산청. 지리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오래 전부터 약초고을이라고 불리는 산청에서 약초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9회를 맞는 산청 한방약초 축제는 맛보고, 느끼고, 만져보는 체험 위주의 다채로운 행사로 오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산청읍 금서면 경호강변과 전통 한방휴양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산청은 예로부터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비롯해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 효험이 뛰어난 수많은 약초들이 자생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최고의 명의로 손꼽히는 신의 류의태 선생과 동의보감을 저술한 의성 허준 선생, 신연당 유이태, 조선후기에 중국에까지 명성을 떨쳤던 초삼, 초객 형제 등 수많은 명의들을 배출하였으니 전통한방과 약초의 본고장이라고 할만하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진 지리산 자락에서 자생하는 약초는 그 효능도 뛰어나 그 우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축제는 다양하고 신선한 볼거리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 ‘한방약초체험관’에서는 각종

체험위주의 전시시설과 체험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산청에서 나는 약초와 약재들과 약용 곤충과 산청 물고기 까지 다양한 전시에 몸에 좋은 약초에 대한 지식까지 얻을 수 있어

운동장 곳곳에서도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는데 장작불에 약을 대워 직접 시용할 수 있도록 만든 200L 들이 대왕약탕기와 약재 썰기 체험장도 있어 아이들에게도 인기만점 축제가 될 것이다. 운동장 메인무대에서는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다양한 공연과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이것을 챙겨보는 재미도 솔솔하다.

그리고 산음혜민사에서 무료 한방 체험 진료를 할 수 있고 산청에서 나는 믿을 수 있는 약재들을 살 수 있으니 자신의 체질이나 몸의 상태에 따라 처방을 받아 좋은 한약재로 약을 살 수 있으니 한 곳에서 모든게 해결되는 셈이다.

메인 행사장에서 차로 10여분 떨어진 거리에는 ‘산청 한의학 박물관’이 있어 또 다른 축제 행사장이다. 우리에게 생소한 한의약을 방대한 자료와 전시물을 통해 좀 더 쉽게 한의학에 다가갈 수 있다. 박물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특별관인데 건강도 측정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지식도 함께 얻을 수 있다.

한편 축제기간 중에는 수십만 평의 고원에 선홍빛의 철쭉이 군락을 이루어 전국 최고의 철쭉군락지인 황매산에서 철쭉제와 경호강변 2만여 평에서의 유채꽃축제, 산골농장의 장미축제, 남시에담촌의 국악한마당, 국악운동의산각자이며 국악교육의 큰 스승인 기산 박한봉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기위한 기산 국악제등 다양한 축제가 함께 열리고 있어 산청한방약초 축제는 가족모두가 만족하는 축제의 장이 아닌가 생각된다.

약초라는 조금 생소한 테마로 접근한 ‘산청 한방약초축제’, 지리산 자락에서 펼쳐지는 이색 축제 속에서 가족의 건강도 챙기고 축제도 즐기는 것,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까.

회사 소식

신입사원



재무인사 임기봉

재무인사 양수경

자재조달 장철민

협력업체탐방

정진 ENG

이유 있는 자부심 ‘정진 ENG’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정진 ENG는 1999년 설립된 써스파이프 전문 업체이다. 지금은 인수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작년 7월 SEA PLUS와의 인수합병을 마쳤다. 인수합병 후 확실한 발돋움을 통해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정진 ENG.

SEA PLUS는 조선소와 일차밴드를 하고 있고 조선과 엄청난 연계를 하고 있어 인수합병으로 인해 육상 플랜트까지 진출할 계획도 보이고 있다. 선보와 인연을 맺은 지는 1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진 ENG의 명성은 예전부터 유명했다.

정진 ENG는 “현대미포조선의 써스파이프 담당으로 시작했는데 그 당시 써스파이프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 써스파이프로는 독보적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제는 써스파이프의 경쟁력을 알고 많은 업체들이 생겨 났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라 자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예전과 달리 많은 신생업체들이 생겨나면서 가격문제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영업력이다. 하지만 영업력보다 그들이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제품의 품질과 납기일이다.

또한, “원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제품에 대한 퀄리티 하나는 무엇보다 자신있게 내세

울 수 있다. 먼저 시작한 만큼 써스 파이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분야에 대해서 매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노하우를 통해 정진만의 생산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분명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제품이 바로 회사의 얼굴인 만큼 지금까지의 자부심에 흠이 나지 않도록 한 번 더 보고 관리해나간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상 밖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2~3일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납기일만은 꼭 맞추려고 노력한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꼭 지키려고 노력하고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다. 생산 공정에서부터 잡아야 하는 부분은 품질교육과 주간, 월간 교육을 해나가면서 원천의 문제부터 바로잡아나가기 하고 있다. 선보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워나가고 있고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품질과 납기일에 대한 자부심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로, 미래로,’ 앞으로 보여 질 그들의 도약이 눈부시다.



생생현장의 소리

김미란 사원

늘 미소로 행복을 전달하는 행복전도사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아마 사람을 대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그만큼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인간 관계가 영업부에 있다.

영업부의 김미란 사원은 2005년 입사하여 한번 받기도 힘든 상을 2006년 우수사원상에 이어 이번에는 모범상까지 거머쥐었다.

환한 미소의 김미란 사원은 "상을 받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교육장에 붙은 사진을 보고 나서 실감이 났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상이라 생각하고 이번 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겠다"며 겸손한 모습으로 수상 소감을 전했다.

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영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영업은 중요한 것이라는 그녀. "영업은 우리 회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고 영업에서는 기본 매너와 소양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라고 말했다. 영업부라는 특성 때문에 대내적인 일보다는 외부적인 일이 더 많은데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 어려운 일도 많다고 한다. 전화도 많이 받아야 하니 말하는 법도 중요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적절히 대처하는 법과 감정 조절하는 것도 어려운

점의 하나라고..

"입사 이후 목표한 매출액을 매년 달성해나가고 있는데 조선업계가 12년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니 그만큼 더 분발해 나갈 것이다. 경제적 위기가 있으나 화합을 통하여 실천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경제적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어려워져서 그런지 웃음을 잃어가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며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행복한 사원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는 말을 남겼다.

그녀는 무엇보다 입사 후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 "아침에 출근하면 그날 해야 할 일을 꼭 적고 어떤 일이든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한다. 업무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나만의 원칙을 만들어 지킬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옛말에 방법을 몰라 패한 장수는 없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기본 원칙들을 자기의 성격, 스타일과 상황에 맞게 잘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순간적으로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아마 지금의 김미란 사원이 있는 것은 그녀만의 원칙을 잘 활용하고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닐까



선보 칭찬 릴레이

제 36호 주인공 | 임인혁 사원

원칙에 맞게, 그리고 소신있게!!



Q 칭찬 릴레이 36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과 주변의 반응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일은 너무도 고맙고 소중한 일인데 이렇게 칭찬의 주인공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에 충실히 해나가는 모습을 좋게 봐주시게 아닌가 생각돼요. 조직사회에서 무엇인가를 혼자 해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직 배울 점이 많은 저에게 더 잘하라고 칭찬 주인공으로 뽑아주시는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아요.

Q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세요?

생산관리와 고객지원 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야드와 납품, 사급관

리를 맡고 있다 보니 출장도 잦은 편이에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고객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바른 자세와 늘 같은 마음,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맡고 있는 일이 생산에서부터 납품까지다 보니 제품이 제일 처음 생산 돼서 관리하고 그것이 고객에게 잘 전달되었을 때, 그리고 고객이 만족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자부심을 느껴요.

어떤 일이든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에 충실하려고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요령과 노하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마인드를 잃지 않으려고 하고 소신 있게 내가 맡은바 충실히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Q 37호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을 추천한다면?

주위에 근면 성실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한번만 추천하기 너무 어렵네요. 그중에서 긴급한 피스 제작으로 바쁘고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지원반의 오남기 사원을 추천합니다.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축하합니다!

본사 생일	구영 생일
입원 최홍렬(5/11)	설계5팀 김정석(5/20)
품질보증 최경희(5/13)	설계6팀 임우택(5/15)
본사설계 송현범(5/9)	하림테크 이태수(5/1)
	대한VNG 손종필(5/1)
1공장	배성수(5/7)
출하준비반 인태주(5/29)	오갑진(5/23)
이주록(5/1)	보성산업 김주환(5/3)
광진산업 최영권(5/6)	공공생(5/10)
유성산업 김중석(5/15)	이원규(5/19)
정수원(5/16)	서경플랜트 김용범(5/19)
보은반 이상해(5/13)	박재일(5/30)
김옥민(5/29)	
금현산업 신부천(5/15)	
2공장	구영 입사기념일
배만필 진정현(5/21)	QA 김건우(5/1)
장상권(5/10)	생산관리 황지환(5/2)
	설계6팀 민병철(5/19)
3공장	영도 생일
엄익생(5/24)	선각생산관리 이정훈(5/31)
최병해(5/27)	
지기환(5/20)	영도 입사기념일
장창욱(5/25)	품질보증 박상계(5/1)
	자재운영 이태욱(5/19)
본사 입사기념일	
경영기획 이재민(5/1)	
설계3팀 신인호(5/1)	
품질보증 박상계(5/1)	
기술연구소 박문열(5/16)	
박기지(5/1)	
1공장 유문열(5/3)	
이영근(5/1)	
3공장 최재호(5/1)	

틀린그림찾기 5개



SUNBO FAMILY는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글을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예쁘게 편집하여 사보에 실어드리고 맥으로 사보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